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 탁 환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다. 통섭이나 문화콘텐츠 혹은 CT(Culture Technology) 같은 용어들이 유행하면서, 여러 학문의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1990년대부터 학제 간 연구가 권장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각 학과에 소속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모여 연구만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상이한 학문 영역 때문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커고 연구 성과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여건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과 내의 학제 간 연구나 이과 내의 학제 간 연구와는 달리, 문과와 이과 간의 학제 간 연구는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변변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고등학교에서부터 문과와 이과로 배운 영역을 분리한 탓이 가장 크다. 문과의 경우는 수학이나 과학을 등산식하게 되고 이과의 경우는 국어나 역사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SF(Science Fiction) 작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학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대부분 문과 출신인 까닭에 과학을 소재로 한 이야기 밀글과 창작에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낀다.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잊달아

참된 융합형 교육 틀을 만들자

선보인 '개미'나 '뇌'와 같은 장편소설이 해당 과학분야에서 수준 높고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들은 아직 과학과 문학의 행복한 만남을 꿈꾸는데 주지한다. 과학과 예술 등 여러 학문과 예술에 모두 능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까. 로버트 루터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에는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13가지 도구들이 실려 있다. 각각의 예로 제시되는 인물에는 과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어서, 13가

성을 이해하고, 함께 연구할 과제를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찾고, 그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학제 간 교육기관의 목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문과와 이과, 그리고 예술까지 이루르는 다빈치형 인간을 배출하는 것을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의욕을 갖고 시작한 융합형 인재의 창출은 쉽지만은 않다. 우선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와 학생들이 아무리 열린 마음을 지녀도 고등학교 때부터 깃든 문과 혹은 이과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문과 출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정보를 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품는 이도 적지 않다. 그러나 13가지 생각도구를 의인화한다고 한 인간이 여러 학문을 넘나드는 다빈치형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생각의 도구들이 탄생한 삶 자체에 주목해야 하며, 그 삶의 전제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융합형 교육에 맞는 새로운 논문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매학기 제출되는 학제 간 학위논문을 검토하면 천차만별이다. 교육기관은 어느 학과에서 주도하여 만들었느냐에 따라 어떤 논문은 공대식이고 어떤 논문은 인문 대식이고 어떤 논문은 예술대학식이다. 기껏 2년 혹은 5년 동안 융합형 교육을 한 후에 그들을 다시 높은 학문의 벽 안으로 끌어 넣는 것만은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제도와 교육 방식도 중요하지만 참된 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가슴이다. 일본의 독서왕 다치바나 다카시의 '청춘 표류'에는 부와 명성을 버리고 자신이 선택한 일에 몰두하는, 원숭이 조련사, 소리를 칠기 장인 등 11명의 청춘들이 등장한다. 다빈치형 인간을 꿈꾸는 젊은이여! 도전하라. 극복하라. 아름답게 승리하라.

〈소설가·카이스트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멕시코·중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그동안 쌓인 신문을 들추다가 '여행객들이 이 휴대폰 골프채가 너무 무거워 중국 행 비행기 이용을 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중남미 여행에서 보고 온 소박한 모습과 신문에서 본 문화의 차이를 오버랩되면서 또 다시 쓰쓸해졌다.

평소 여려나라 출신의 환자들을 대하거나 세계 곳곳을 여행할 때마다 느낀 공통점은 많은 한국인들은 외국을 여행할 때 평소에 깔끔한 차림으로 다닌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록 가난하지만 순진하고 인간미가 넘치며 친근감이 있다. 물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의 몸에 밴 '못

물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슬픈 과거 역사의 산물이겠지만 그렇더라도 지나친 자기 과시는 정신병의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왜 여행하면서 까지 그런 과시를 할 필요가 있는가. 평상시에는 좋은 옷을 입고 생활한다 하더라도 여행할 때에는 간편한 의상을 입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 여행객들은 외국을 여행할 때 평소에 깔끔한 차림으로 다닌다는가. 끼어온 헌법을 막론하고 그들은 유색인종을 대하면서 왜 움찔한 표정이 짓는가.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필자는 과테말라를 여행 중이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식당

과시는 이제 그만

된 버릇'이지 악의적 사기성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한국인들은 비록 여행 중에 머니면 외국서 만난다 해도 먼저 신분을 확인하려는 듯 위아래를 째려보며 경계하는 빛이 확연하다. 같은 한국인임을 알게 돼 눈이 사라져 할리마치 금방 고개를 돌려 위면하듯이 아니면 신분확인 결과 자기보다 높다고 느껴질 때는 아부성 태도를, 낮다고 판단될 때는 경멸하는 태도를 보인다.

값비싼 평품의 상을 걸치고 쇼핑센터를 휘젓고 다니다가 현지인들이 나타나면 혹여나 뭔가 물을 세우거나 서둘러 피하는 태도에선 더러운(?) 현지인들에게서가 아닌 한국인들에게서 역겨움을 느끼게 된다. 물론 날마다 고개를 끄덕여나오는 한국인들이 볼 때면 같은 한국인이지만 정말이지 낮뜨거움을 느낀다.

에 내려갔더니 식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죽구 중계에 열중이었다. 한 끝을 넣으니 모든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르고 있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였는데 그곳 현지인들은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백인보다도 황인종인 한국인들이 자기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인 하면 선망의 눈으로 대한다. 1950~60년대 미군들의 뒤를 쫓아온 우리들처럼.. 한국의 우수한 전자제품, 자동차 또 한류 등의 영향이리라 생각된다.

한국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이제 그에 걸맞는 품격에 갖춰야 한다. 거만과 과시는 당장 중단하자. 그에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자. 엄청난 외교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기 고

장용주



지난 2000년 4월 18일 서울 잠실경기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의 야구 경기. 2회초 1루에 출루해 있던 임수혁 선수가 후속타자의 안타로 2루 베이스에 안착하는 순간 쓰러졌다. 누구에게나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심장 부정맥(일종의 심장마비)이었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임선수는 8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다.

"누군가 우리 아들 가슴 몇 번만 쳐주었더라고..."

사건 직후 임수혁 선수의 아버지가 한 말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에서 종종 인용되곤 한다.

계가 잘 갖춰진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다양한 커리큘럼 확립과 사회적 인식 정착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에는 심장 전기충격기(AED)를 비치해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구급차, 여객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장 전기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절반이 초기 발생 시 다른 증상 없이 돌연 심정지가 발

응급처치 시 심장전기충격기 의무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29.2명으로 10년새(1996년 13명) 2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은 4%로 선진국 평균 28~40%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심장이 정지하고 4~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는데 심정지는 보통 집, 공공장소, 체육시설 등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주로 일어난다. 주변사람의 초기 대응이 심정지환자를 소생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복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과 생존 후 후유증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이 낮은 이유가 바로 주변 복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의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 응급의료체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흉통, 심계항진(심장박동이 세지는 것),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비교적 전천히 급성 심근경색이 시작된다. 이 중 전자는 심장 전기충격기의 주요 사용상이다. 전기충격을 초기에 적절히 시행하면, 생존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중요하고 기다려왔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많은 시민들이 119구급대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각종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다. 물론 올해부터는 심장 전기충격기 사용법에 관한 교육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소생 시킨 소방대원이나 일반시민에게 배지를 수여하는 '하트 세이버 배지' 제도를 운영해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전기충격기 사용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을 받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방서 문을 두드리라고 권하고 싶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대응구조과장〉

교육당국이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해야

이제 곧 개학이다. 개학하면 맞벌이 부부는 또 다른 걱정에 시달린다. 현장학습 때문이다. 지난 학기 때에는 각 반별로 아이들이 리 결정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다. 주로 놀이동산이나 유원지로 간다.

현장학습이라면 교실 안에서 배운 것을 현장으로 가 학습하며 몸으로 느끼면서 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노는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부모와 함께하는 현장학습은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처럼

결손 가정이나 맞벌이 부모가 많은 현실에선 자칫 가정으로부터 소외를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유적지 답사, 단체관람 등 교육 당국에서 학년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사진 준비의 번거로움이나 통솔의 어려움 때문에 교육 당국이 가정에 허락기는 것은 아닌가.

공부는 사교육으로, 현장학습은 가정에서, 급식은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보면 답답함을 느낀다. 이러다간 학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닌지.

교육당국이나 교사들이 당장의 편협을 좁기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했으면 한다. ▲김이현·광주시 북구 연제동

해외 골프로 연간 1조원 유출... 국내 경쟁력 높이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난다. 그 돈이 연간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 골프의 연간 총수입이 5천억원 정도라니 해외로 빠져 나가는 돈이 2배나 된다.

골퍼들이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골프장 이용료가 싸기 때문이다. 해외로 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국내 골프시장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외화 유출을 가속화될 것이다. 특히 적당한 크기의 섬을 찾아 골프 관광특구로 개발해 연중 그곳으로 국내외 골프인구를 흡수하면 될 것이다.

▲이성해·광주시 서구 벽진동

시 설

조선대 로스쿨 탈락 받아들일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조선대학교가 탈락한 것은 너무 충격적이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

쿨 신청대학 41개 가운데 25개 대학을 확정하면서 광주권역에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제주대 등 4개 대학을 포함해 조선대를 배제됐다.

로스쿨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정원배분 비율도 문제다. 당초 4대 6에서 52%대 48%로, 또 다시 57%대 43%로 조정되면서 지방 정원을 계속 줄여 왔다. 이는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의 양극화 악화라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오히려 수도권·지방대학 간 편 가르기로 조장하고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펼이 됐다.

객관적 지표와 지역적 상황을 무시한 이번 로스쿨 선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평가기준과 점수 등을 모두 공개하고 선정 대장에 무언지 밝혀야 한다. 교육부 역시 의혹 투성이 로스쿨 인증을 재심의해 지방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여수엑스포 '시간 없다'는 BIE 사무총장

한국을 방문한 빈센테 콘찰레스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해 충언을 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박람회까지 4년이 남아 있지만 박람회장 건설과 도로·숙박시설 등 인프라 확충, 국내외 홍보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체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수세계박람회가 통일된 비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양정책 부문과 해양환경 부문은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지역적 세력을 다져야 할 것이다.

BIE 사무총장의 고언이 아니더라도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세계박람회가 열리는 3개월동안 하루 10만여명 등 8000~9000명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게 된다. 관람객을 수용하려면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와 숙박시설 및 페스티벌 등을 확충해야 한다.

박람회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다.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비롯 인력, 예산, 행정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세계박람회 개최까지 매년 1~2차례 한국이나 런던, 뉴욕 등 해외에서 심포지엄 및 세미나를 개최해 주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일정은 촉박하다. 당장 5월까지 여수세계박람회 세부 개회계획을 담은 인정 신청서를 BIE 측에 제출해야 한다. 인정 신청서가 BIE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12월 총회에서 의결되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이 확정된다.

박람회 준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의 제정이다. 특별법은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비롯 인력, 예산, 행정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정치권은 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주부터 담양 가마골을 시작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다. 고로쇠는 경첩을 전후한 보름 정도가 제철로 알려져 있으나 지구 온난화로 채취 시기가 앞당겨졌다.